

대중의 지혜는 종단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준비를 앞두고 제방에서 올라오신 여러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스님과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실 발제자와 그 장단을 살피 바른 안목을 전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을 다해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종단은 1,700년 역사를 이어 온 한국 불교의 온전한 계승자입니다. 장구한 역사의 물결과 그 변곡점 속에서 고비마다 위기를 겪으면서도 종단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빛나는 가르침과 선대 조사들의 치열했던 수행력, 사부대중이 함께 빚어낸 문화적 산물인 성보 문화재 등 사부대중의 지혜가 수행 공동체 속에 살아 숨 쉬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유산을 계승하고 후학들을 위해 불교중흥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소임입니다. 전통을 잇고 내일을 준비하는 현재에 있어 부족한 종무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 역시 사부대중의 지혜로서만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단 대표자 선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도 이러한 자세와 사명감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동안 총무원장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직선제를 비롯하여 현행 간선제 확대, 추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모아 종헌과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실질적 성취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논의의 장은 확장하고 종도들은 계속적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4대 총무원회는 이러한 종도의 의사를 존중하고 “직선제 검토”라는 사부

대중과의 약속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구본사와 중앙총회, 원로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개정에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구성원 모두의 민주적 의사 개진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전통적인 산중 공의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종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집행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단 개혁 20주년입니다. 개혁의 완성은 과제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종단 운영과 관련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994년 종단 개혁이 ‘종단 운영의 제도화’였다면 이제 그 내용인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불교적 화답’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4대 종단 집행부가 꿈꾸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자비의 조계종’, ‘화쟁의 조계종’, ‘이웃의 조계종’이 되겠다는 발원과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총무원장 선출 제도에 대한 합의를 찾아나가는 것은 물론 종단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와 시대를 선도하는 수승한 지혜가 모여져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이 기쁘게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계종단의 대중이 모두 함께 일어나 즐거이 법담을 나누는 향연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석 대중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4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